

2024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위원정수	11인	재적위원수	11인
------	-----	-------	-----

1. 일 시 : 2024.11.29.(금) 10시 30분
2. 장 소 : 대구예술대학교 제1예술관 2층 회의실
3. 위원 출석현황

구 분	참 석	불참석	참 석 의 원	불참의원
위 원	8명	3명	이근배, 백진우, 이상직, 김성기, 김성원, 김종문, 정영주, 박종수	김성준, 한지수, 이혁화

4. 안건

제1호의 안 : 학칙 개정(안) 심의

5. 회의내용

가. 개회

- ‘간사’가 재적의원 중 8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됨을 보고하다.
- ‘의장’이 2024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나. 안건 심의

제1호의 안 : 학칙 개정(안) 심의

- 제안설명

- ‘의장’이 제 1호의 안 학칙 개정(안) 심의 건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학칙 개정(안)에 대해 경과사항, 개정 목적, 개정 내용에 대해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학칙 등의 개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기간에 교수노조에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기에 같이 첨부하였다고 하다. 참고로 학칙 개정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위해 교무처 이상명 직원이 참석했다고 하다.

- 토론 및 토론 종결

- ‘의장’이 의원들에게 제1호의 안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해 달라고 하다.
- ‘의장’이 학칙 제10조는 관련법이 바뀐건지 질문하다.
- ‘간사’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전공변경에 학년제한이 있었지만 이 제한이 없어졌다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학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고 대학학사자율화 취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이상명’직원이 대학학사자율화의 추진배경으로는 학력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라 시대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학인재양성방안 등 정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학의 사회수요에 대응하여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는 그런 취지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다.

서 명	이근배	백진우	김성기	김종문
--------	-----	-----	-----	-----

- '이상직'의원이 수료학점과 졸업학점이 왜 낮아졌는지 질문하다.
- '이상명'의원이 내년 2~4학년 학생은 현재와 동일하고 신입생부터 학점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이렇게 되면 다른 대학에 비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하다.
- '이상명'의원이 대구·경북이나 전국적으로 졸업학점을 120학점으로 하는 대학이 거의 다라고 하다.
- '백진우'의원이 이행당사자의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학점을 줄이는 것은 재정상의 이유겠고 교수들은 책임시수가 있는데 많은 불안감이 있다. 학생은 선택권이 줄어들고 교원은 책임시수 미충족으로 재임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졸업학점을 10학점 낮춘다고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우리와 타 대학의 상황이 다른만큼 타 대학을 따라가기만 하는건 아닌거 같다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교수노조의 의견서 전체를 회의자료에 왜 포함했는지 모르겠고 이에 대한 대학측 의견도 없었다고 하다.
- '간사'가 교수노조 의견서는 교무위원회에서도 회의자료로 쓰였기에 평의원회에서도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여겼고 의견서의 일부 발취를 하기에는 수정하는 듯 해서 원문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다.
- '백진우'의원이 제58조 개정(안)에 2학기분 이상의 수업료를 일시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다는데 이런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 들고 이해가 안된다고 하다.
- '이상명'의원이 1년 수업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비자심의를 받을 때 학업의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비자발급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다.
- '김종문'의원이 타 대학을 확인해보니 코로나 전후로 서울·경기권 대학들에서 학업의지를 고취시키고 학생중도탈락을 낮추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고, 학칙에 내용이 없으면 한 학기밖에 못받으니 개정해서 수요가 있어 1년 수업료를 받는다면 대학입장에서는 좋겠다고 하다.
- '김성기'의원이 1년치 수업료를 낼 유학생이 있겠는가 보다는 규정이 없어 못받게 되는데 더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학칙 37조, 40조 개정은 학생대표와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하다.
- '백진우'의원이 학칙 37조, 40조는 교원들의 신분과 관련됐고, 책임시수와도 연계된 사안이라고 하다.
- '김종문'의원이 이번 학칙 개정과 함께 업적평가규정이나 교원 책임시수가 변경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다.
- '이상명'의원이 졸업학점 120학점은 최소 학점일뿐이며 학점을 더 이수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다.
- '김종문'의원이 졸업학점은 감축되는데 교원의 책임시수가 그대로라면 교수들에게 불리해 보인다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폐강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학칙 개정(안)에서 37조와 40조는 제외해야 한다고 하다.
- '의장'이 의원들에게 동의안을 내달라고 하다.
- '김성기'의원이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안을 낸다고 하다.
- '김종문'의원이 원안에서 10조, 58조, 67조는 원안대로 하고 37조, 40조는 교원의 책임시수를 감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전제로 원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안을 낸다고 하다.
- '의장'이 의원들에게 두 동의안에 대해 각각 찬성여부를 물어, 김성기 의원의 동의안에 2명이, 김종문 의원의 동의안에 5명이 찬성하기에 김종문 의원의 동의안으로 의결하다.

서 명	이 주 백	백 진 우	김 성 기	김 종 문
--------	-------------	-------------	-------------	-------------

6.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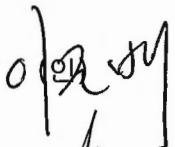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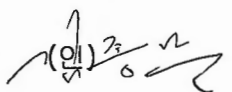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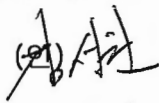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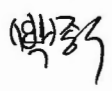
- 제1호의 안 : 학칙 개정(안)에서 제10조, 제58조, 제67조는 원안대로 하고, 제37조, 제40조는 교원의 책임시수를 감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7. 폐회선언

상기 회무를 마치고 위원들의 폐회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어 위원장이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2024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본 회의록의 의사진행사항 및 그 의사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날인하다.]

2024. 11. 29.

참석인원	의장	이근배		의원	이상직 (인)
	의원	김성기		의원	김종문 
	의원	김성원		의원	정영주 
	의원	백진우		의원	박종수 
				작성자	김광진 